



## 제3회 인제청년상

# 장려상

**소통과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빅이슈'를 중심으로

**최 나 래**

## 소통과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빅이슈’를 중심으로

### 1. 만남의 시작

3년 전 여름의 어느 우연한 만남이 있기 전까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자리는 어떤 곳일지 상상해보곤 했다. 궁핍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자촌이나, 서울역에서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누워있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아마 가장자리를 이루는 힘겨운 사람들이 아닐까, 이들에게는 따뜻한 음식과 옷가지와 같은 구호품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막연한 연민이었다. 2010년 8월의 명동 거리는 뜨거운 열기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바쁜 움직임 속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아저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잡지 빅이슈입니다’를 외치며 서 있었다. 귀퉁이에 선 아저씨의 허름한 차림새와 덩수룩한 수염은 세련되게 차려입고 길을 재촉하는 직장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어서 한동안 멈춰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저씨는 과거에 자신이 노숙인이었지만 지금은 빅이슈에 취직이 되었다고 했고, 이 잡지를 팔아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때로는 시선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며 좋은 하루 되라고 그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호기심에 잡지를 한 권 사들고 돌아온 나는 다음 날 영등포 청과시장 어귀의 빅이슈 사무실을 찾았다. 이름과 달리 작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빅이슈(Big Issue)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하여 출간되는 잡지이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립을 원하는 노숙인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거리에서 잡지를 팔며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신한 시도라는 기대감과 과연 노숙인들이 잡지를 팔아 자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일 판매원에 지원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신도림역 앞에서 안정선(가명) 아저씨와 함께 빅이슈를 팔았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그칠 줄 알았던 그 날의 인연은 3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2010년 여름에 빅이슈 판매 도우미로 시작하여 편집부와 독자모임, 빅이슈 판매원들의 친목활동에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던 3년간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작은 사회적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경계에 놓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는지를 때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또 때로는 그 안에 뛰어들어서였다. 이 만남은 내가 막연히 그려왔던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찾는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묘에서 시작하여, 이들을 끌어안는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거대화된 현대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당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체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에서 제외된 소수자들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어렵다는 대표성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최소 1만3천명 이상일 것으로 집계된 노숙인 인구<sup>1)</sup>는 수적으로도 소수이면서,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러한

1) ‘2012 전국노숙인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발표 자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국도시연구소.

대표체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잊혀진 존재가 되곤 한다. 빅이슈는 그 가장자리  
 의 위태로운 사람들이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는 대신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왔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체에서 시작한 빅이슈는 봉사단체를 넘어, 노숙  
 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노숙인들을 대신하여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혹은 노숙인 스스로 그럴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를 열어  
 줌으로써 대표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빅이슈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있는 그대로 이  
 해하고, 그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소통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강화’할 때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노숙인 이해하기 : 노숙인으로 세상 앞에 선다는 것

평일 아침 여덟시의 신도림역 앞은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안정선(가명) 아  
 저씨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철로 통하는 입구까지 빼곡히 차 있는 사람들의 행렬에서  
 한 발짝 떨어진 도로변에 직접 만든 빅이슈 홍보 포스터를 들고 서 있었다. 처음 만나는  
 노숙인 출신 판매원 아저씨에게 약간의 낯섦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길 돌릴  
 새도 없이 지나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빅이슈를 사달라고 외치는 것이 더 어려  
 웠다. 쭈뼛대며 아저씨 뒤로 숨기를 여러 번, 아저씨는 그 사이 활기찬 아침인사를 건네며  
 여대생들에게 잡지를 두 권이나 팔았다. 부끄러워 숨는 내가 번거로웠을 범도 했을 텐데,  
 같이 나와 준 것이 어디냐며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고마워했다.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인지, 혹은 많이 팔아야겠다는 오기였는지 ‘빅이슈입니다’를 간신히 꺼내던 얌전한 말투에  
 서 어느새 역 안까지 들릴 듯 한 목소리로 ‘홈리스의 자활을 돕는 착한 잡지 빅이슈입니  
 다’, ‘여러분이 읽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권하는 빅이슈입니  
 다’ 와 같은 다소 낮간지러운 광고문구까지 붙여가며 외치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처음 대중 앞에 선 나를 압  
 도했고, 이제는 능숙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는 판매원 아저씨의 보조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는  
 지 밝히지 않았지만, 노숙인이었던 과거와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를 모두 밝히고 그  
 낯선 이들에게 다가서는 아저씨는 훨씬 어려운 도전이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보았다. 이런저  
 런 광고 문구를 구사하는 나와는 달리 아저씨는 자신이 노숙인이었지만 지금은 빅이슈 판  
 매원이라는 이야기부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같은 인사말을 더 자주했다. 노숙인이었던 과  
 거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리고 잡지를 판매하는 순간에도 동정을 구하지는 않았다.

‘노숙인이었던 것이 자랑은 아니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요. 빅  
 판(빅이슈 판매원)이 되고 보름은 선배 빅판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는데 그 때는 포기하  
 고 싶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었죠. 부끄럽고  
 힘들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  
 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직장이 있고, 또 학생처럼 날 응원하러  
 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2010.8)

능숙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저씨에게도 여전히 매일매일 대중 앞에 마주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하루하루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느끼기엔 충분하다는 그의 대답이 잡지를 사달라는 말보다 밝은 아침 인사를 많이 하는 그의 행동을 설명했다. 나에게도 과분할 정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저씨와 헤어져 돌아온 나는 한동안 아저씨의 긍정적인 마음을 생각하다가 다시 거리로, 그의 직장으로 지원을 나갔다.

안정선(가명) 아저씨를 신도림역에서 몇 번을 더 만나는 동안 노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숙인에 대해서 ‘마음먹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쉼터와 같은 재활시설이나 무료 급식소’라는 것은 그들의 취약성을 일부분만 이해한 것이거나, 노숙인 역시 ‘보호받고 대표되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판단이다. 빅이슈에서 노숙인 출신 판매원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는 ‘노숙인 문제를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라면서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은 비정기적인 주거와 식사 문제와 병이 있어도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소득상황으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10.8). 또한 노숙인들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빅이슈와 서울시의 연계프로그램인 빅스마트의 운영진 역시 ‘노숙인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핸드폰과 같은 기본적 연락수단도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소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혀, 노숙인의 자활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수반되는 일임을 시사했다(2011.2).

노숙인 문제를 보는 이러한 시각은 정책 지원에서도 드러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한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현행 정책은 주로 기본 복지(basic welfare)에 기반한 서비스의 공급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시설, 건강진단 등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재활 및 보호 시설, 직업교육, 채용지원자금 등을 제공한다. 노숙인 수의 감소, 지원 금액은 노숙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자립을 위한 주거와 취업 지원이 중요한데, 일시적인 자립은 노숙인 생활로 다시 복귀하게 하므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현황에 대해 빅이슈의 코디네이터는 ‘노숙 생활을 하던 분들은 건강이 매우 약하고, 신용불량자라서 연락처 하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업교육이나 채용 지원 사업이 있어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듭니다’라며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노숙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12). 또, 빅이슈 코리아 판매부 담당자는 ‘지원금, 보호시설 위주의 지원정책은 노숙인을 일시적으로 정착하게 하지만 결국 거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보호’ 정책이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자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2013.8). 실제로 현재 빅이슈에 소속되어 일정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판매원 생활을 하는 50명 중 쉼터 생활자는 2명뿐이며, 나머지는 고시원 방처럼 독립된 주거 공간을 선택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2013.6월 기준). 노숙인 출신으로 판매원 생활을 시작한 안정선(가명)씨는 ‘비록 좁은 고시원이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노숙인 아니라는 안도감, 이렇게 성실히 모으면 더 좋은 집에서 식구들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준다'고 밝혔다(2010.8). 실제로 노숙인 대상 보호소의 경우 이 곳 생활을 지속하거나, 이곳을 기반으로 자립을 하는 경우보다 다시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일시적인 보호 기능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시적인 보호나 구호품의 제공은 노숙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현재 노숙인 대상 정책은 노숙인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안정선(가명) 아저씨는 빅이슈를 판매하면서 느끼는 외면과 지나침은 여전히 낯설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숙인 지원 정책도 노숙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느낌을 받은 한다고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원망 섞인 말을 한마디 던진 아저씨는 곧이어 잡지를 읽어주는 독자들과 재기의 기회를 준 빅이슈에 감사한다는 말로 화제를 돌렸지만, 아저씨의 말이 가진 무게를 깨닫게 된 것은 노숙인으로서의 경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였다. 판매 활동 짬짬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저씨들이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서서 판토타임 공연을 하게 되었다며 보내온 초대장 덕분이었다. '나눔은 도움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라며 거리에서처럼 빅이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은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약자로 정의되는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었는지, 가장자리의 위태로운 그들을 더욱 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남겼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여전히 빅이슈 홍보보다는 인사 건네기에 열심인 안정선(가명) 아저씨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스스로 먼저 다가가려는 것이었음지도 모른다.

'한 자리에서 판매를 하면서 점점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이제는 옆의 가게에서 가끔 음료수나 과일을 가져다줘요. 그러면 나는 줄 게 없으니까 그날 더 열심히 파는 거지. 나도 음료수라도 한잔 가져다주고 싶으니까. 인사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나를 기억하고 빅이슈를 읽지도 않겠지만 나 때문에 기분이 좋고, 또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할 것 아니에요.' (2010.9)

### 3. 노숙인과 소통하기 : 사회통합의 시도

#### -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찾아서

사회통합은 정치의 궁극적 과제로 제시되어 많은 사상가들의 관심 주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계각층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를 위한 부처인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이 운영되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슬로건과 정부가 사회를 통합하는 방식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대표'하기 위한 '관계 맺음'이 부재한다.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대명 2009;8). 이러한 정의는 각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ibid).

따라서 한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에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생존의 필수조건인 안정적인 주거와 식사조차 위협받고 있는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노숙인은 일정한 거주지의 부재로 가장 기본적 정치적 권한인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의 부재로 경제적인 자립을 실현할 수 없고, 가족과 떨어져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 곁핍, 신체적 건강 악화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김안나 외(2008)는 소득 빈곤, 노동, 의료, 주거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노숙인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취약성은 노숙인은 ‘고립’ 상태에서 기인한다(C. M. Blanco et al 2009). 고립은 사회적 연결고리의 부재상태인데, 결국 사회 체제에 자신들을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게 한다. 고립 상태에 있는 노숙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보호소, 식사, 의복 등 생필품 보급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존중받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해낼 수 있는 소통 공간이 함께 제공될 때 대표체제로 편입될 수 있다. 빅이슈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소통의 공간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의지를 가진 노숙인 자신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숙인의 자립은 폭 넓은 개념입니다. 어디까지를 자립에 성공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숙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주거 취약 계층인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지요. 그렇지만 그 주거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혹은 어떤 직업으로 재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2013.6)

‘사회통합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지만, 때로 확실성을 강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그 부작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 발생한다(노대명 2009;3).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전제로 하지만, 스스로 소통의 장을 열 역량이 부족한 노숙인들을 위해서 누가 소통 공간을 열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 -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결사체 민주주의

약자들을 위한 소통공간의 부재는 취약 계층이 충분히 대표되기 어려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기도하다.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 국민 대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다원화되는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와 고도로 집약된 정당의 정책 프로그램만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을 적절히 대표’하기 어려운 것이다(김의영 2005). 대의 민주주의가 내제한 대표성의 한계를 시민에 의한 자발적 조직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결사체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중반의 토크빌(A. Tocqueville)로부터 시작되었지

만, 현대적 의미의 결사체 민주주의는 허스트(P. Hirsrt)가 20세기 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하면서 재조명되었다. 허스트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대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에 대한 그의 강한 지지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위하여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가 있다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조직들의 분화, 다원적 가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스스로가 보호받고 대표되도록 사회와 자신을 연결 짓기에 취약계층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자리의 위태로운 사람들이 경계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심부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다.

그러나 결사체 민주주의는 헌신적인 개인의 공동체적 협력에 의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다.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자발적 결사체의 개인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로이 모이고, 연대하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생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결사체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목적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결사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즉 자기 결정에 의해 부여된 동기를 따라 스스로를 대표해내는 사람들, 유사한 가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소통과 연대가 사회적 약자들도 대표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참여, 참여에 대한 책임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핵심 원리로 하면서 소수자 배제 문제를 보완해낸다. 각 원리는 책임 있는 가치 다원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결사체를 형성하며(ibid 19), 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회를 통합한다. 둘째로, 이렇게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결사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서로에 대하여 책임성을 지닌다(ibid 22).’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참여와 탈퇴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구성원 간 정보교환,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 운영 원리’ 및 ‘내부 문제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규범’에 따라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ibid 20, 44). 이는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결사체의 형성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제 선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결사체 민주주의가 소수자를 대표함으로써 다원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결사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이 어떻게 결사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 - 결사체 민주주의의 한국적 적용 : 사회적 기업 ‘빅이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누가 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될 것인가의 문제와 사회적 목적만을 위한 조직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봉사단체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약자를 수혜의 대상으로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절한 대표

체계로 보기 어렵다. 사회적 목적의 지속적인 달성과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은 양자를 모두 만족한다는 점에서 봉사단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기업은 20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영국 정부는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 혹은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하며(영국 제3섹터청 2006),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국가별로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핵심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조직이다(경제활동). 둘째, 영리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다(사회적 목적). 셋째, 기업가 정신, 시장원리, 혁신 등 영리기업의 운영 원리를 활용한다(기업형 운영원리). 넷째, 정부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경제적 자립). 다섯째, 종업원, 사용자, 고객, 지역사회,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사회적 소유구조를 형성한다(사회적 소유구조)(Alter 2004; 이승규·라준영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생산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등을 이상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11:70).

봉사단체나 인권단체가 아니라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구호 대상으로 여겨지던 노숙인을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만든 사회적 기업이 빅이슈이다. ‘당신이 읽으면 세상이 변한다’는 모토로 시작된 빅이슈는 1991년 영국의 노숙인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이 봉사단체가 노숙인들이 직접 잡지를 팔고 한 부 가격의 절반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 자활을 하는 길거리 신문사로 발전하였다. 잡지 가격의 나머지 절반으로 빅이슈에서는 잡지를 제작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며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 단체를 중심으로 2010년 7월 빅이슈가 설립되었다.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은 누구나 빅이슈 판매원에 지원하여, 한 달간의 임시 주거지와 함께 초기 자본금으로 빅이슈 10권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다. 판매원이 한 권에 5,000원하는 잡지 10권을 모두 팔면, 빅이슈 본부에서 2,500원에 구입하여 다시 5,000원에 판매하면서 자활 자금을 모은다. 6개월 간 성실히 판매원 활동을 하고 저축을 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1년을 유지하면 취업을 지원받으며 완전한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

빅이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잡지 판매 수익금의 반은 노숙인 지원에, 반은 다시 잡지 제작에 투자하는 수익 구조이다. 특히 한국의 빅이슈는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수익금 전액이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완벽한 수준의 재정적 자립을 달성하고 있다<sup>2)</sup>. 여기에 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판매부수를 기반으로 하여 광고 수익이 5%대로 상승한 것이 향후 수익 확장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빅이슈 담당자는 이러한 재정적 자립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종이를 기업에서 제공받고, 그 기업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주는 비금전적 교환구조와 최소 수준으로의 인건비 절감’을 꼽았다(2013.8.). 이러한 최소 수준의 인건비는 빅이슈 설립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것으로 창립부터 함께 했다는 한 코디네이터는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 노숙인 자활을 위해 스스로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를 받고 일하지만 큰 보

2) 빅이슈가 처음 설립된 영국에서도 보조금의 비중이 60%(2008-200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재정자립도의 달성은 사회적 기업의 난제이다.



람을 느낀다'고 밝혔다(2011.2.).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빅이슈에서는 기업과 같은 혁신구조를 실현하였다. 2010년 창간 당시 빅이슈 가격은 3,000원이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판매 부수가 높음에도 수익률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3년 4월 독자 설문조사를 거쳐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분량을 100면으로 증편하고 기사 구성을 다변화하는 등 독자와의 소통을 통한 품질 혁신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소통 경로를 갖추고 있다. 재화 판매라는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이윤의 수혜자인 판매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빅이슈 직원과 판매원들이 열 명 내외의 소모임을 결성하여 판매와 운영에 대한 의견과 정서적인 교류를 한다. 또, 소비자인 독자와 함께하는 '수다회'를 조직하여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수다회에서는 잡지에서 보장해야 할 내용을 건의하거나,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같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기도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판매원들이 참여하는 소모임 공연 티켓(발레, 판토마임)을 나누어주기도 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이다. 또, 생산하는 재화인 잡지 자체에 소통 경로를 추가하여 사회적 재화를 생산해낸다. 재능기부자들의 다양한 기고문(만화, 수필, 사진)과 전문기자의 기사가 함께 구성된다는 점에서 빅이슈는 시장적, 비시장적 자원을 혼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빅이슈를 구독하는 사람들, 봉사자들의 모임인 빅돔, 재능기부자들은 빅이슈의 잡지의 질이나 운영방식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와 탈퇴에 제약이 없다. 참여와 탈퇴가 자유로움에도 빅이슈에 참여한다는 점, 사회적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한다는 점에서 빅이슈는 공정한 운영과 사회적 목적 증진에 대한 책임성도 지닌다.

빅이슈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1년 창간이후 5,500명의 노숙인이 자립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대만 등 세계 10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근래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이래 3년 만에 판매부수가 4배 이상 늘었으며, 2013년에는 7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잡지와 견주어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추세 때문이다. 빅이슈를 통해 자립을 시도하는 노숙인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00여명이며, 그 중 1년 이상 판매를 지속하여 임대 주택 입주에 성공한 노숙인은 22명이다. 2013년 현재에는 50명의 판매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전국적 확장을 목표로 2012년 이후 인천, 경기, 대전 지역에서도 판매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 < 빅이슈 코리아 연간 판매부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판매부수	73,000부 (월 평균 12,000부)	53,000부 (월 평균 13,000부)	294,000부	480,000부(목표)

\* 판매원 1인당 하루 평균 20부 판매

20세기 말 이미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보완하려 등장한 결사체 민주주의는 이미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러한 결사의 존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의 노숙인들이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대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즉 20세기 결사체 민주주의론자들이 중시했던 자유로운 참여와 책임, 운영 과정의 민주성 원리는 결사체의 내적인 측면에 한정된 원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21세기의 한국형 결사체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 4. 노숙인 역량 강화하기 : 사회통합의 달성

##### - 역량강화의 의미

소외된 개인들을 사회의 테두리로 끌어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을 때,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의 역량 강화에 대한 블랑코 등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C. M. Blanco and J.A. Bermúdez 2009). 블랑코 등은 권력이 사회, 정치, 심리, 경제적 차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사회적 권력은 사회 조직에서의 참여와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권한을, 정치적 권력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투표권은 물론 발언권, 집합 행동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심리적 권력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체감이며, 경제적 권력은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독립성이다(ibid 657-658). 역량강화(empowerment)는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블랑코 등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노숙인들이 길거리 실문을 팔면서 어떻게 역량강화를 경험했는지를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노숙인들이 길거리 신문을 만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다양한 빅이슈 판매원 아저씨들을 만나면서 빅이슈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했다.

노숙인들은 길거리 신문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각 요인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ibid 658-662). 첫째, 경제적 역량강화는 직업을 통한 소득의 증대로 이뤄진다. 잡지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의식주 등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는가가 포함된다. 이는 가족들과의 재회,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성장의 기본이 된다. 둘째, 사회적 역량강화는 능력, 기술, 지식과 함께 집합 행동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길거리 신문의 판매원들은 대인 접촉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길거리 신문의 내용 측면에서 노숙인들과 독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정치적 역량 강화는 길거리 신문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의 참여도 포함한다. 넷째, 심리적 역량 강화는 자존감, 자신감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판매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것은 물론 정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미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졌던 노숙인들이 길거리 신문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역량강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길거리 신문의 판매활동이 노숙인의 역량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대신하는 한계가 남는다. 효과의 유무보다는 이러한 역량강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가 현대 민주국가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역량의 강화를 염두에 둔 지원책은 노숙인을 사회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 노숙인의 현 상황에서 시작하여 사회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강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통합을 이뤄낸다는 장점이 있다. 역량강화 모델(empowerment model)의 기준과 척도는 빅이슈를 경험한 노숙인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소통과 연대’의 기회를 강조한 한국 빅이슈에서는 심리적 역량강화에 그에 따라 다른 역량이 파급효과를 받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 - 빅이슈의 역량강화 : 노숙인, 그리고 시민으로의 확장

빅이슈에서 역량 강화가 강하게 일어난 원인은 잡지 빅이슈가 언론 매체로서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여타의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달리 언론으로서의 빅이슈는 생산자들의 이야기, 즉 노숙인 출신 판매원들의 희망을 담아내는 공간이 따로 있다. 시사잡지의 성격을 지니는 빅이슈는 문화, 사회, 국제 분야의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잡지 분량의 20% 정도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판매원들은 자신의 판매 지점에서 알게 된 손님의 이야기나 임대 주택을 얻게 되면서 가족과 재회한 소소한 이야기를 위한 공간이다. 다양한 지원들 중에서 특히 유용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받아 노숙인에게 지급하고 사용방식을 교육하는 빅스마트 덕분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연락처조차 없어 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빅이슈를 통해 소개된 것이 대표적이다(2013년 8월 66호 빅이슈). 빅이슈는 기성 매체들과 달리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하며 쌍방향 소통 매체로서 기능한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원들은 잡지의 내용을 꿰고 있으며, 빅이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소비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빅이슈를 구매하며 만난 판매원 아저씨들은 몇 월호에는 자신의 인터뷰가 실렸고, 몇 월호에는 동료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립한 이야기가 실렸다고 과월호를 권했다. 노동자로서의 판매원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노동자의 인간소외를 경험하는 대신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맞물린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빅이슈를 판매한지 2개월이 지났다는 이명신(가명)씨가 빅이슈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을 판매 수익금이 아닌 자신감으로 꼽은 것도 자신이 판매하는 빅이슈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노숙인들은 빅이슈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며, 강화의 기준은 ‘본인이 원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판매원으로서의 삶과 판매원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해진다. 빅이슈의 지원은 획일적이지 않고 노숙인 이전의, 그리고 노숙인으로서 개인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다. 1년간 같은 지점에서 빅이슈를 판매했다는 김진근(가명)씨는 빅이슈를 통해 자립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평범한 시민’이 되었다고 밝혔다.

‘저는 어려서부터 거리 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 집을 나와 이때까지 집을 가져본 적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몇 푼이 주머니에 없었죠. 내 것이라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빅이슈를 만나고 가장 신기했던 것

은 주민등록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주소도 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판매원 생활을 1년쯤 하고나니까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이 두 개나 있고 욕실이 딸린 내 집을 보니까 천국 같았어요. 남의 문을 여는 것은 불안했는데 내 문을 여닫는 다는 건 정말 기뻐요. 하나 더 있네요. 제가 번 돈으로 버스를 타고, 빅이슈를 사러 가고, 다시 빅이슈를 팔러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립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2012.4).'

자립과 변화는 개인에 대한 온전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에 노숙인의 역량 강화는 심리적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부분의 변화로의 과급이 이뤄졌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대'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안정선(가명)씨는 판매도우미를 하면서 친해진 뒤에는 노숙인이 된 계기 그리고 빅이슈를 만나 일어난 변화를 담담하게 밝혔다.

'IMF때 사업에 실패해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니깐..... 하지만 집을 잃었다는 것보다 훨씬 슬픈 건 하나뿐인 딸을 친척집에 맡기고 십년이 다되도록 연락을 못했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십년을 거리를 전전하다보니까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뭐라도 해보자 생각하던 차에 무료급식소에서 빅이슈를 소개받고 왔어요. 처음 보름은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서 나 노숙인이었소하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딸 생각을 하며 버텼지요. 일이 익숙해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딸에게 연락할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얼마 전에 받은 핸드폰인데 꽤 좋지요<sup>3)</sup>? 이걸로 딸하고 연락을 합니다. 매일 문자도 보내고, 일 마치면 전화도 하고요. 앞으로는 자립 자금을 모아서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난 노숙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거든요(2010.9).'

빅이슈를 통해서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고, 가족이 다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경험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빅이슈에 '우리 동네 빅판'이라는 코너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판매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빅이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노숙인의 '연결과 연대'를 주선하였다. 안정선(가명) 아저씨는 몇 달 후 성공회대에서 주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인문대학인 '성프란시스대학'에 입학하였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곳은 노숙인, 재소자 출신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역사, 철학, 예술사 등의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희망을 갖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빅이슈 코리아의 창립 때부터 함께 했던 한 코디네이터는 연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노숙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움츠러들거나, 다른 사람을 경계부터 하는 성향이 있어요. 빅이슈에서 발레 동아리, 축구 동아리를 조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목적이 큼니다.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듣도록 연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처음 판매를 시작하면서 낯설고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모임을 통해서

3) 그가 보여준 핸드폰은 빅이슈와 서울시가 연계하여 노숙인에게 중고 핸드폰을 지급하는 빅스마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것이었다.



점차 활발해지고, 자연히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되어서 판매량도 오르게 되더라고요 (2010.12).'

연대의 기회를 통하여 빅이슈 판매원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역량강화의 폭 역시 확대되었다.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은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는 자립, 가족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어 빅이슈 잡지 내의 기고문, 의견 개진 코너는 이미 다양한 판매원들이 구성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의 판매원은 학생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로 곰 인형 액세서리를 잡지와 함께 주었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다면서, 잡지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인사를 건네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서 정을 느낀다고 전했다(2011년10월 22호 빅이슈). 가족에서 다수의 사람들로 연대의 폭이 확장된 것이다. 개인적 역량인 심리적 강화는 연대의 폭을 넓히며 사회적 역량 강화로 강하게 과급되었다.

연결과 연대 이외에도 심리적 역량강화의 또 다른 장점은 자아실현에 있다. 빅이슈를 거쳐 간 200명의 노숙인 중 22명이 임대 주택에 입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판매부 담당자는 스스로 진로를 찾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빅이슈를 거쳐간 분들이 선택한 제2의 진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세탁소나 의류 수선소에 취직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평소 전공하고 싶었다던 관광경영학을 배우는 분도 있어요. 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보일러 수리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한 분도 있고요. 명동역 판매원은 매일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주변 은행에 취직이 되기도 했어요. 성실함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직업을 찾는 대신 판매원 생활을 계속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아서 임대 주택 입주 후에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요(2013.7).'

노숙인에 대한 자립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원되기도 한다.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지만 직접 만들어 볼 기회는 없었다는 한 판매원은 빅이슈 판매원을 지원하는 가게인 빅숍에 가맹된 카페의 장소 협찬, 바리스타의 재능기부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2012년3월 31호 빅이슈). 현재까지는 빅이슈를 통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혹은 호의에 의해 기회를 얻은 경우, 재능기부자에 의해 배우고 싶던 기술을 익히는 경우와 같이 노숙인의 자활 의지,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뜻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노숙인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서울시의 중고 핸드폰 지원을 이끌어내어 빅스마트 사업을 시작했듯, 노숙인의 자활의지와 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결사체로 인하여 취업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설계도 가능할 것이다. 즉, 빅이슈가 지원하는 심리적 역량강화는 판매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강화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빅이슈 직원, 독자에게도 사회적 기업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기회를 제공했다.

정치적 차원의 역량강화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정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극적 역량과 사회적 약자 계층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역량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생기면서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소극적 역량강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판매원 김진근(가명)씨가 밝힌 것처럼 일정한 주거지가 생기고, 주민등록과 주소지가 생기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정치적 역량강화를



입증한다. 한편, 적극적 역량 강화는 국가 체제의 변화에 한정되지 않고 소속된 공동체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폭 넓은 개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빅이슈 코디네이터와 판매원 십여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이다. 이 모임은 통해서 서로의 일상이나 판매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지만 빅이슈에서 지원해주었으면 좋을 것들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개진이 동시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역량강화의 발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견 교환과 그것이 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역량강화는 노숙인 출신의 판매원들보다도 빅이슈의 취지에 동조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빅이슈의 다양한 소모임에 참여하고, 판매원을 돕는 봉사활동을 자원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역량강화에서 나아가 정부의 노숙인 지원 사업에 빅이슈 판매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나, 노상에서 빅이슈를 판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그렇다. 그 결과 서울시, 경기도, 지하철 공사에서 공식적인 협조를 받게 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심리적 역량강화에서 시작된 노숙인 개인 차원의 강화는 전 영역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 5. 다양하기에 아름다운 사회통합

빅이슈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왕성한 활동은 우리나라가 대의 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식 역량강화를 추가한 결사체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IMF 위기 이후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실업자,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빈부격차나 빈곤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여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다. 노숙인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실제 환경을 고려할 목소리를 수렴하는 통로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속사정을 들어주는 통로,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통로가 필요하다. 또한 이 통로는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역동성을 지닌다. 사회적 약자를 약자로 규정짓기보다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그들이 더욱 강해지도록 하는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형식의 관계 맺음은 지속적이다. 2010년 판매활동을 같이했던 판매원 아저씨는 1년이 지나서도 나를 잊지 않고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왔다. ‘오늘 성프란시스 대학 졸업했어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처음 찍는 셀카라 사진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노숙생활 이후 딸아이와 처음 연락하게 된 핸드폰이라며 자랑했던 아저씨가 잡지를 옮기던 두툼한 손을 뺀어 학사모를 쓴 스스로를 찍었을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다가도,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고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짝한 기분이 들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에 만난 또 다른 판매원 아저씨는 ‘다른 판매원들한테는 봉사활동을 하러 많이 온다는데 난 오늘이 처음이라 그동안 섭섭했다’며 웃었다. 보통은 스무 권의 잡지를 함께 판매하지만 그 날은 더운 날씨 탓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다섯 권밖에 팔지 못

했는데도, 아저씨는 연신 괜찮다며 내 덕분에 다섯 권이라도 팔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3년에 걸친 만남 속에서 노숙인이 구호품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생각보다는 관심과 응원만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며 성장해나가는 다양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문제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Hirst 1994).’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빅이슈와 같은 다양한 결사체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생산성을 모두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를 공론화하며 국가를 다원화한다(ibid).’ 빅이슈의 아름다운 파급효과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스마트, 빅이슈 판매원의 쉼 곳을 제공하는 인근 상가 빅숍, 판매 지원 봉사단인 빅돔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노숙인 자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나가며 다원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빅이슈의 성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 통합을 달성할 한국판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sup>4)</sup>를 꿈꾸게 한다.

---

4) 빅공동체사회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2010년 영국 보수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빅 거버먼트(Big Government)와 달리 민간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를 공급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실제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 ※ 참고문헌

- 김안나 외.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의영. (2005)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39권 3호. pp.433-455, 한국정치학회
- 김성기. (2011) '사회적기업의 이슈와 쟁점 -여럿이 함께의 동학', 아르케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년 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규·라준영 (2010),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률(SROI), 벤처경영연구, 제13권 제3호.
- Alter, K. (2004),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Seattle.
- C. Magallanes-Blanco & J. A. Perez-Bermudez. (2009) 'Citizens' Publications That Empower: Social Change for the Homeless'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9, No.4/5, pp.654-664
-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 영국 제3섹터청(2006), 조영복·곽선화 역 (2011),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 Scailing new heights', '영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시그마프레스
- Martin Powell et al, (2007), 김기태 역(2011)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lelfare' , '복지혼합', 나눔의 집
- Paul Hirst. (1994) 'Associative Democracy: New Forms of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Cambridge